



당신의 시대, 이제는 통일이다!



이슈 in 통일

최근 한 달간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주요 소식 및 이슈 모음



누아씨 (NUAC)가 간다

제18기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



당신이 통일주인공

콤플렉스는 내 삶의 훈장 뷰티 전문가 박진선 원장



통일돋보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역대 남북 스포츠 교류 현황



앱 설치하기



지난호 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 신청



구독 해지



웹진개선의견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재인 대통령 개회사



존경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민주평통 의장 문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 자문위원 여러분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국, 전세계에서 오신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740만 해외동포들을 대표해서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도 오셨습니다.
어디계십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해외 자문위원들께
모두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한 곳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서울을 벗어나 전체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떨습니까? 오시느라 고생은 좀 했지만 등해바다도 보고,
설악산 단풍 구경도 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시설도 둘러보고, 좋으시죠?

이곳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이 자문위원 여러분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이제 100일 하고 하루가 지나면 이 경기장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주요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때도 우리 자문위원들께서 가족, 이웃과 손잡고 강원도로 달려오시겠습니까?

지금 강원도민들과 최문순 지사가 온 힘을 다해 세계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뜨거운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인 것도 평창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이끌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이 한마음으로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 그리고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평화는 올림픽의 근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평화를 이뤄낼 능력이 있습니다. 평창의 문, 평화의 길은 북한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평창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은 수 백발의 미사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 올림픽을 통해 세계인들과 만나고 화합한다면 강원도 평창은, 이름 그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창이 움트는 화합의 장소로 거듭 날 것입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방금 우리는 김덕룡 수석부의장과 황인성 사무처장의 보고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도 아주 뿌듯합니다. 두 달밖에 안됐는데도 벌써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국내 17개 시도 지역회의와 228개 시군구협의회, 해외 43개 지역협의회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자문위원 위촉국가도 122개국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무엇보다 18기 민주평통의 주요 활동 방향이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민주평통의 저력과 18기 자문위원 모두의 지혜가 모인 결과입니다. 서로에게 큰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예년과 달리 상향식으로 18기 민주평통의 활동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매우 뜻깊습니다. 정부도 국정운영계획을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었습니다. '평화문 1번가'를 운영을 통해 총 16만 여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소중한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더 굳건히 공조할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도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국민이 주신 의견들을 실천가능하게 다듬고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삶과 밀착된 정책 건의들을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으로부터 길어 올린 평화통일의 의지와 정책만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반년은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여는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국민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드리면 얼마든지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가능하다는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민주평통의 활동에도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더 자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서가 모아지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은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평화통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만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또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서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평화통일의 길은, 국민통합의 길과 하나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지역과 세대, 계층 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때 국민통합과 함께 평화통일의 힘도 모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자 민주평통 의장으로서 여러분이 전하는 국민의 의견을 무겁게 듣고 여러분의 판단과 제안을 존중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와 공조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평화통일의 전도사이듯이 해외 자문위원 여러분은 평화통일의 '외교관'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이로운 경제발전은 물론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품격과 국익을 책임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져주시요. 우리국민은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세계 곳곳에서 당당하게 말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평화는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우리 18기 민주평통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자문회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 18기 민주평통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평화! 평창!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여는 통일의 문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평화! 평창!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외치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 평창올림픽 경기장 아이스아레나를 앞에서 기념촬영 중인 자문위원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가 10월 31일 강릉 아이스아레나홀에서 열렸다. 새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의 첫 회의로 개최된 '18기 전체회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평화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만여 자문위원들의 평화! 평창! 사랑이 뜨겁게 느껴졌던 전체회의 현장을 다녀왔다.

전국, 전 세계에서 1만여 자문위원이 모이다

10월의 마지막 날, 강릉 아이스아레나홀 앞이 시끌벅적하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세계 122개 국가에서 1만여 명의 자문위원과 내빈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각 협의회들은 기다란 팻말을 들고 줄지어 등장했다. 마당 한쪽에서는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풍물패 공연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 반다비가 있는 무대 기념촬영이 한창이었다.



▲ 강릉 풍물패 공연

▲ 기념촬영 중인 자문위원들

시원한 아이스링크 앞에 마련된 무대에는 '평화! 평창'이라는 슬로건이 의미심장하게 걸려 있다. 내년 2월에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다. 그간 서울에서만 열렸던 전체회의가 최초로 강릉에서 열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평화와 평화올림픽을 기원하는 릴레이 문화공연

식전행사로는 평화올림픽을 기원하는 문화공연이 마련됐다. 개그맨 김영철의 사회로 진행된 무대는 클래식 보컬 그룹 '유엔젤보이스'의 노래로 시작됐다. 경기장 객석을 가득 채운 18기 자문위원들은 5인조 남성 보컬이 부르는 '아! 대한민국'과 'You Raise Me Up'을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도 했다.



▲ 클래식 보컬 그룹 유엔젤보이스 ▲ 국악 소녀 송소희 ▲ 개그맨 김영철과 가수 종진영

이어 국악 소녀 송소희가 우리 전통음악 '배 띄워라'를 불렀다. 가녀린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그윽한 노래말을 힘 있게 전달하자 자문위원들의 호응이 점점 뜨거워졌다. 이에 송소희 양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평화올림픽을 응원한다"는 인사와 함께 '아름다운 나라'와 '아리랑'을 들려주었다.



▲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위원 위촉식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는 18기 민주평통

회의는 민주평통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함께 시작됐다. 회의의 진행을 맡은 정미선 아나운서는 "평화와 평화올림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사회를 맡게 돼 영광"이라며 힘찬 음성으로 전체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회의는 △개회선언 및 주제영상 시청 △국민의례 △제18기 민주평통 경과 및 활동방향 보고 △자문위원 정책건의 의의장 개회사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자문위원 위촉식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자문위원 영상 메시지 △평화 올림픽 기원 특별공연 △폐회 세레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18기 출범과 자문위원 구성에 관해 황인성 사무처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18기 민주평통은 국민 저변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제18기 민주평통활동자문위원은 변화와 혁신의 국민적 염원을 반영해 총 19,710명의 자문위원 중 국내 65.3%, 해외 53.6%의 자문위원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설명했다.



▲ 경과보고를 하는 황인성 사무처장 ▲ 제18기 민주평통 활동방향을 발표하고 있는 김덕룡 수석부의장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제18기 활동방향은 전체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와 출범식, 자문위원의 의견을 사전 수렴한 최종안"이라고 소개하며 4가지 주요 활동방향을 발표했다. ①국민 중심의 열린 정책 건의 ②소통으로 공감하는 통일 활동 ③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④적극적인 평화 공공외교가 그것이다. 홈페이지 정책건의 시스템을 통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현장 채널을 다양화해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정서를 가감 없이 수렴, 전달하겠다는 세부 방침들도 보고했다. 보고 끝에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실현해 나갈 때 8천만 국민 모두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임을출 자문위원 (경기 과천시협의회) ▲ 김숙자 자문위원 (강원도 인제군협의회) ▲ 김동식 자문위원 (미국 뉴욕협의회)

임을출(경기 과천시협의회), 김숙자(강원도 인제군협의회), 김동식(미국 뉴욕협의회) 자문위원은 2만 자문위원을 대표해 '18기의 첫 정책건의'를 했다. 내용은 크게 3가지 주제로 첫째, 평화 올림픽을 위한 남북협력과 국제 협력 방안, 둘째, 통일국민협약을 중심으로 한 우리사회 평화정책 방안, 셋째,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에 관한 건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측의 참가를 성사시켜 '지구촌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드높이고 평창이 '평화 올림픽'을 구현하는 강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평화의 대제전이 되도록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지도자들과 유엔 사무총장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평화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참여 통로를 넓혀주고 국민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국민협약이 보수와 진보, 세대, 지역을 뛰어넘어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협약으로 만들어져야겠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고 한반도 평화정책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를 위한 주변국과의 공감대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화공공외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세밀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홍보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단상에는 김희진 북유럽협의회 회장, 허남세 중국 광저우협의회 회장, 최민경, 채가혜 자문위원이 2만 자문위원을 대표해 올랐다. 이어서 모든 자문위원이 일어나 '평화!와 평창'을 상징하는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의지를 다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삶으로부터 걸어 올린 평화통일 의지와 정책만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국민이 주신 의견을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더욱 중성하게 만드는 것이 자문위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의 목적지는 오로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며 “대통령이자 민주평통 의장으로서 여러분이 전하는 국민 의견을 무겁게 듣고 여러분의 판단과 제안을 존중하여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회사 후에는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해외 자문위원들의 응원 영상을 상영했다. 122개국에서 활동 중인 자문위원들은 현지 언어와 우리말로 ‘평창 올림픽 파이팅!’, ‘레츠고 평창’ 등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이스아레나홀을 ‘평화’로 물들인 피겨 갈라쇼

회의 마지막 순서에서는 평화올림픽을 기원하는 특별공연이 열렸다. 공연은 총 4막에 걸쳐 진행했는데, 제1막은 피겨 공나무들이 두 개의 촛불을 링크장 가운데로 끌고 와 시작되는 ‘작은 빛이 인도하는 평화의 길’이라는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제2막은 ‘평화의 길을 밝히는 평창’이라는 제목으로 국가대표급 여자 선수와 주니어 피겨 선수 두 명이 각각 싱글과 커플 공연을 펼쳐보였다.



▲ 피겨 싱글 공연

▲ 피겨 커플 공연

▲ 싱크로나이즈 피겨 스케이팅 공연

제3막은 싱크로나이즈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영화 ‘라라랜드’ 주제곡에 맞춰 ‘평화, 평창 그리고 세계의 축제’라는 근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16명의 선수들이 소동과 협력으로 만들어내는 무대는 마치 평화통일과 평화올림픽을 상징하듯 아름다운 군무와 하모니를 이뤘다.

제4막 ‘평화! 평창! 민주평통이 함께 하겠습니다’에서는 강릉시립합창단과 강릉예총청소년예술단들의 ‘내 나라, 내 겨레’ 합창과 함께 싱크로나이즈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의 ‘평화! 평창’ 깃발순회가 펼쳐졌다. 이에 1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 나라, 내 겨레’를 따라 부르며 ‘평화! 평창! 목도리를 펼치는 폐회 세레머니를 함께했다.



▲ 평화! 평창!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폐회 세레머니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숙명입니다” 열정 가득 18기 자문위원들을 만나다

1만 여명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지난 10월 31일 강릉 아이스아레나홀에 모였다.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제18기 출범을 알리는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평화! 평창’이라는 슬로건만큼이나 뜨거웠던 통일과 올림픽에 대한 열망과 각오를 들어봤다.



통일은 사랑, 힘, 마중물입니다



심우민(서울 강동구협의회 자문위원)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저희 자문위원이 국민 단합을 이끌어야 합니다. 18기 자문위원으로서 더욱 단단한 통일 기반을 다지고, 통일이 곧 희망이고 힘이라는 것을 알리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양학순(충남 천안시협의회 회장)

130여 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18기 충남 천안시협의회는 문재인 의장님의 통일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전 자문위원이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대학생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미래 세대들이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도록 그들의 통일외지를 개선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하혜정(경기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신입이라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끄럽지 않은 자문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일수(서울 성동구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은 우리의 살길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금은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아야하지만, 남북이 힘을 합할 때 비로소 당당한 세계 우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태영(경남 의령군협의회 간사)

통일은 국민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자문위원으로서 통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남북이 좋은 관계를 이루도록 국민 정서를 모으겠습니다.

임순천(충남 공주시협의회 간사)

18기 충남 공주시협의회는 임재은 회장님을 비롯해 총 54명의 자문위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는 ‘통일은 사랑’이라는 정신으로 첫째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는 청소년 통일안보교육에 힘을 실겠습니다.





박영일(경기 여주시협의회 회장)

남북은 현재 휴전 상태일 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 여주시협의회는 근본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지역 분열을 막고 주민들의 화합과 통일의지를 이끌어내는 데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재(서울 강남구협의회 간사)

저희 강남구협의회는 35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역 주민 및 탈북민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8기 역시 여러 통일활동과 멘토링에 힘을 실어 국민과 의장님의 통일 여망을 이루고 보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노봉(충남 아산시협의회 자문위원)

국민들이 바라는 통일 방안을 잘 전달하는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통일은 우리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생각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통합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최은경, 신소라(서울 종로구협의회 자문위원)

17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게 많아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정도로 활동했는데, 이번 18기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청년자문위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다른 지역, 분야와도 교류, 협력할 수 있는 매개자가 되겠습니다. (최은경)
통일은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모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통일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도래할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그런 숙명을 거부하지 않고 통일을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소라)



이광진(충북 음성군협의회 자문위원)

충북 음성군협의회는 통일에 관심이 많은 자문위원들로 구성했습니다. 오늘 평창까지 와서 18기 전체회의에 참석했는데, 오늘을 시작으로 통일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협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최명숙(경남 사천시협의회 자문위원)

통일은 남북을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남 사천시협의회 자문위원들은 개인과 지역 주민 모두가 평화를 향한 한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평화통일, 행복한 평창올림픽 만들어요!

경미선 아나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리나라 헌법 기관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18기 민주평통은 '2018 평창올림픽'과 함께 더욱 의미 있고 기대되는 기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1만 여명의 내빈과 자문위원 분들이 힘을 모아 아름다운 평화통일, 즐거운 평창동계올림픽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신애림, 김하현(강릉예총청소년예술단)

강릉예총청소년예술단은 합창단, 밴드, 무용단, 국악단, 오케스트라 등 5개 분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중 저희 합창단은 강릉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릉시립합창단 선생님들과 '내 나라 내 고향'이라는 곡으로 민족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담았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노래인데도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추록, 조유빈, 이화원(팀블레스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한국에서는 아직 새로운 종목이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매년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 스케이팅은 16명이 협력하고 소통해야 좋은 공연이 되기 때문에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와 가장 잘 어울리는 무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 빨리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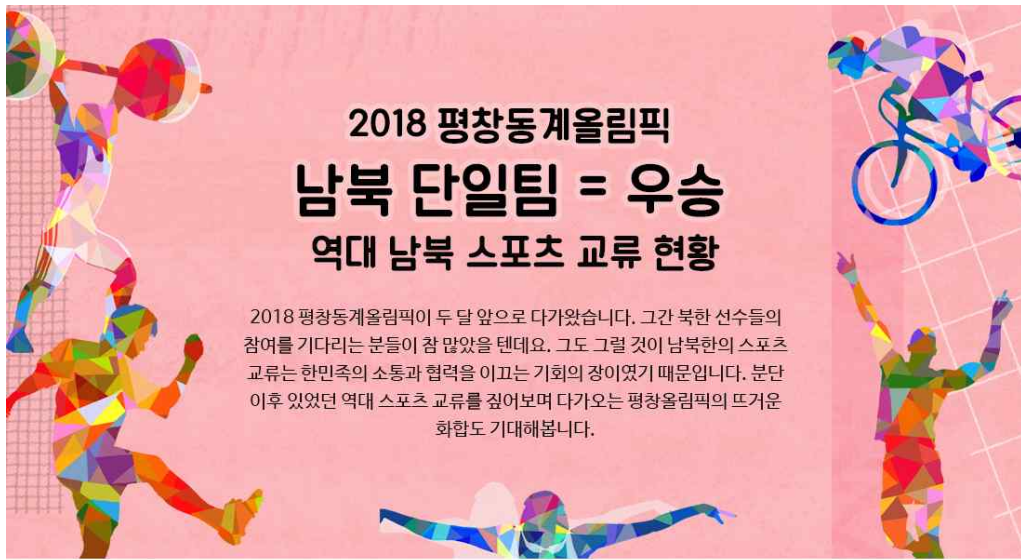
유엔젤보이스

안녕하세요! 클래식 보컬 그룹 '유엔젤보이스'입니다. 평화와 평창 올림픽을 응원하는 행사에서 노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아! 대한민국'과 'You Raise Me Up' 두 곡을 준비했는데, 모쪼록 힘차고 아름다운 민족단결이 되길 응원합니다. 평화, 평창 파이팅!



〈취재_기자의_강문의_사친_선영민〉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 우승 역대 남북 스포츠 교류 현황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간 북한 선수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았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는 한민족의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 기회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단 이후 있었던 역대 스포츠 교류를 짚어보며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의 뜨거운 화합도 기대해봅니다.

1964

도쿄올림픽 이산가족 상봉의 시초가 되다



여자 육상에 출전한 북한 신금단 선수가 올림픽 경기에서 남한에 살던 아버지 신문준과 상봉 이후 남한 여야 의원 45명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결의안'을 제출

※ 사진: 국가기록원

1990

남북통일축구대회 44년만의 경평축구대항전을 펼치다



1990년 44년만의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열어 평양(10. 11)에서는 북한이 2:1, 서울(10.23)에서는 남한이 1:0으로 승리

※ 사진: 국가기록원

1991

최초의 남북 단일팀 구성 탁구 우승, 청소년축구 8강 신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는 남한의 현정화, 북한의 리분희, 유순복 선수가 단일팀 '코리아'로 활약해 당시 9연패에 도전했던 중국을 3:2로 꺾고 우승 국가 대신 '아리랑'을 부름 * 2012년 영화 <코리아>로 제작

같은 해 6월 열린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는 서울에서 결단식, 평양에서 해단식을 개최했고 남북 단일팀 코리아가 아르헨티나와의 예선전을 뚫고 8강까지 진출

※ 사진: 연합뉴스

1998

‘민간 스포츠 교류’의 시작

축구, 농구 등 2005년까지 4회 진행



남한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 1998년 8월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현대통일농구대회 등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4회에 걸쳐 민간인 스포츠 교류 진행

※ 사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응원 및 태권도시범단 교류

2002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이 18개 종목에 318명의 선수를 파견, 북한의 만경봉호 응원단이 남한과 함께 응원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북한 유도팀이 처음으로 남한을 방문 참가, 한국은 종합 3위, 북한은 종합 9위 차지

※ 사진: 연합뉴스

시드니올림픽

올림픽 최초로 남북이 통일된 ‘한반도기’ 들고 입장

2000



미국의 한 매체는 이날을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선정 이후 2006년 토리노올림픽까지 남북의 공동 입장이 7차례 이어짐

※ 사진: 연합뉴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및 2018 평창올림픽

2002
2008



2010 월드컵 예선전에서 남북이 총 3차례 대결을 펼쳤으며 남한은 15위, 북한은 31위를 기록

2018 평창올림픽 남북 예선전에서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강릉 하키센터를,
남한 여자축구대표팀은 평양을 방문해 경기를 진행.
아이스하키는 남한이 3:0, 축구 아시안컵은 남한이 3승1무로
본선 진출권 얻음

※ 사진: 연합뉴스

남북 스포츠 교류 연표 정리

회담	연도	월	경기명	성과
남한 국회의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관한 결의안" 제출	1964	10월	도교올림픽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눈물의 신금단) 유행가 등장
3차례 체육회담 개최	1984	4월	LA올림픽	불참
스위스 로잔느 남북체육회담 개최	1986	9월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불참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1988	9월	서울올림픽	불참
	1990	10월	남북통일축구대회	44년 만의 경평축구대항전
	1991	4월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최초의 남북 단일팀 '코리아' 구성
		6월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 권대회	코리아 단일팀이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8강, 결단식은 서울, 해단식은 평양 개최
	1998	8월	통일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	최초의 민간 스포츠 교류
			현대 통일농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9월		축구, 탁구, 배드민턴 종목 교류 협의 위한 특사 파견
	1999	9월	통일염원 남북한노동자축구대회	
		10월	통일농구대회	
	2000	9월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 최초로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
	2002	9월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 삼삼동 월드컵경기장에서 남북 대표팀 대결(0:0)
		10월	제14회 부산아시아게임	남북 공동응원 및 태권도시범단 교류
	2003	8월	대구세계유니버시 아드대회	북한 유도팀의 첫 남한 방문

	2004	8월	제28회 아테네하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남한 9위, 북한 57위
베이징올림픽단일팀 구성, 남북응원단 협의 등 실무접촉	2005	8월	남북통일축구대회	남한 3:0으로 우승
	2008	3월	아시아 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15명 참가
		4월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북한 선수 7명 참가
		2010	6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예선전
	2014	10월	인천 하계아시아게임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참가
	2017	4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예선전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한국 파견, 남한 여자축구대표팀 평양방문

※ 참고문헌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6월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추진기초와 과제'
김동선 경기대학교 교수
정세와 정책 2014년 10월호 '남북 스포츠 협력의 역사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백학순 세종연구소

이슈 in 통일

'이슈in통일'은 최근 한 달간 주요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소식 중 이슈화 되었던 기사들을 모아 정리한 코너입니다.



러 군사전문가 “北, 4~5년 뒤 미 본토 타격 핵전력 갖출 것”

러시아 군사전문가는 북한이 2년 내에 핵무기로 한국 등 동북아 지역 미군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4~5년 뒤에는 미국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더보기



게이츠 전 미국방 “대북 선제공격은 큰 실수… 3차대전 날 수도”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큰 실수”가 될 것이며 자칫 3차 세계대전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더보기



美 대북지원단체, 北에 의약품 2천만달러어치 지원

미국에 있는 대북지원 민간단체 ‘겨레사랑’이 최근 어린이용 항생제 등 의약품 2천만 달러어치를 북한 양강도 인민병원에 보냈다고 대북 소식통이 밝혔다.

+ 더보기



FAO “北, 제재·작황부진으로 식량상황 더 악화될 것”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대북제재와 작황 부진 등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 더보기

세계일보

해외로 떠도는 탈북민들 거주불명 83% 제3국

국내 거주 소재가 불명확한 탈북민 900명 가운데 746명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592명은 최소 5년 전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보기

dongA.com

중공안 “北, 접경서 테러 우려” 이달초 한국교민에 귀국 통보

중국 공안(한국의 경찰)이 이달 초 북-중 접경지역의 한국 교민 10여 명에게 “북한의 남치 테러 가능성이 있다”며 귀국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보기



유엔제재도 무용지물 CNN “北수산물 중환출서 공공연히 유통”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보기



NYT “북한 해킹, 완벽한 무기 수준… 이란과 기술 공유”

미 정보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6,000명이 넘는 규모의 해커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 정부와 기업의 인터넷망을 해킹해 기밀을 빼내고 돈을 벌고 있다.

+ 더보기

서울신문

北연계 위장회사 홍콩에만 160개 해개발·지금지원

북한이 강력한 경제제재에도 홍콩에서만 160개의 위장회사를 통해 돈세탁의 근거지로 사용하는 등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핵무기 개발 자금을 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보기

dongA.com

시진핑 “어떤 국가도 외딴섬 되면 안돼” 北압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어떤 국가도 자신을 폐쇄시키는 외딴섬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 더보기



트럼프 “北 관련 완전히 준비돼 있어…알면 충격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대북 대응과 관련,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돼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더보기



카터 “현 상황 두려워…북한 가겠다” 방북의사 공식화

‘한반도 위기 해결사’를 자처해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방북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

+ 더보기

서울신문

中, 北 방사능 노출 대비
단동서 모의훈련

중국이 최근 압록강 하류의 북·중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단동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노출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

+ 더보기

dongA.com

기부 큰손들도 北엔 0원...
文정부 800만 달러 지원 고민 커져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마련된 유엔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지 이틀 뒤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의사를 밝혔다.

+ 더보기

경향신문

트럼프, 방한 때 DMZ 대신
평택 미군기지 간다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국 중 한국에서만 국회 연설을 하며, 한국 방문 기간에는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지 않을 계획이다.

+ 더보기



남북이 하나 되는
‘신한류’를 만나다
마산제일여중 ‘너나들이’ 프로젝트



지난 여름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통일탐구토론대회’에서
남북한 문화의 신한류를 제시해
1등의 영예를 안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산제일여중 **‘너나들이’** 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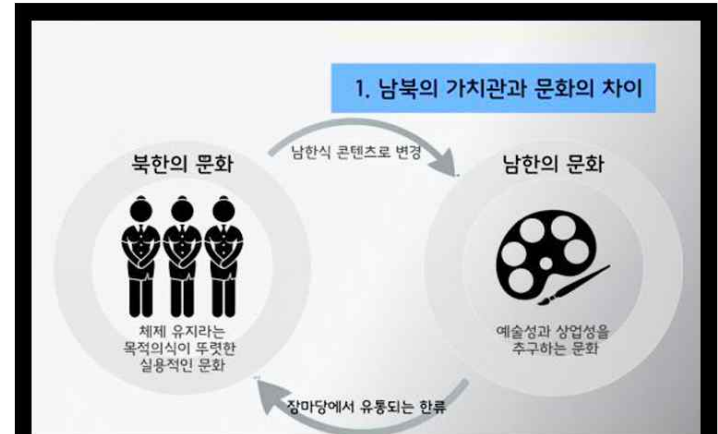
너나들이라는 이름은
 '서로 허물없이 지내다'라는 순우리말로
 남북한 민족의 너나들이를 영원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먼 미래에도
 로봇이나 기술로 대체되지 않는 것이
 '문화'라는 점에 착안해
 남북한 문화를 융합한
 신한류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죠.



너나들이팀이 대회에서 제안한 것은
 '통일, 현재 그리고 미래 - 신한류 시작되다'
 입니다.



예를 들면
 남한의 감각적인 K-POP 문화에
 북한 평양교예단 등의 조직성을 더해
 새로운 신한류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조미료 없이 식재료로만
맛을 내는 북한 고유의 음식이나
북한 애니메이션의 섬세한 기술을
남한 콘텐츠와 융합해 더욱 뛰어난
신한류 문화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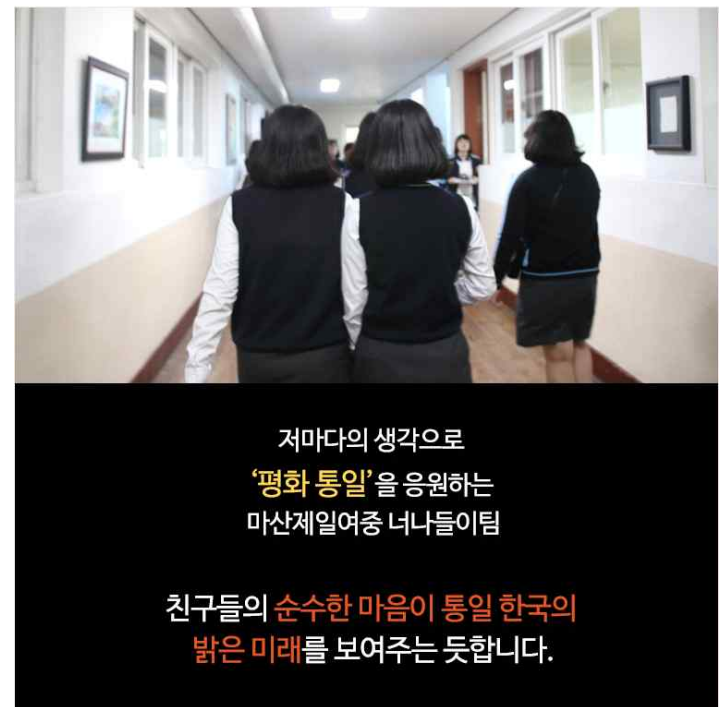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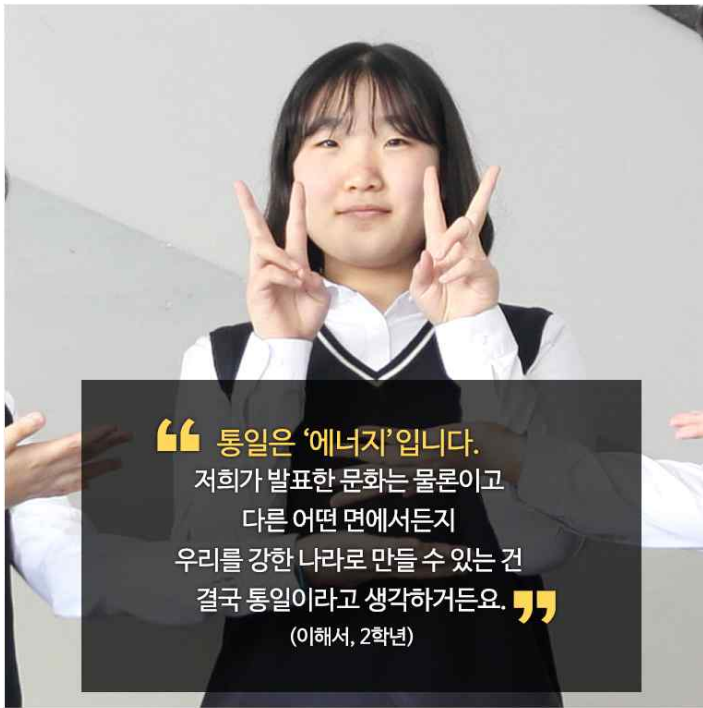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를 지도해준
전선희 선생님은
“친구들이 어느 한쪽의 특징이 사라지는
통일이 아닌, 남북한 문화를 모두 살려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낸 진정한 통일을
보여준 것 같아 기특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무궁무진한 신한류 문화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페스티벌 국가기구
UCF(Unification Culture Festival)를 만들어
신한류 문화를 세계에 유통하는
아이디어도 제안했는데요.



“ 지금 북한 주민들이 몰래 즐기는 남한 문화가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을 줄여줄 거라 생각해요.
저희도 캐나다의 모자이크 프로젝트 같은
다문화정책을 만들어서
서로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존중해주는 통일한국이 됐으면 해요 ”
(신다인, 3학년)



북한의 낭만 6교, 평양 대동강 이야기

이준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북한 평양 대동강

남한을 대표하는 강은 한강이고 북한을 대표하는 강은 대동강이다. 평양에 위치한 대동강은 청류교, 옥류교, 동라교, 대동교, 양각교, 충성의 다리 등 여섯 개의 다리가 연결돼 있다. 북한의 대동강은 평양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홍수 피해를 막아주는 곳이다. 최근에는 여름부터 가을 사이 대동강택주 축전을 여는 낭만의 장소이기도 하다.

분단 이후 평양 대동강의 저주

1968년 7월 3일간 400mm 폭우로 평양이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다. 당시 대동강에서는 사람과 짐승들이 떠내려 오다 옥류교 보에 맞아 숨지는 아비규환이 벌어졌다. 김일성 주석은 모란봉 일일대에 올라 그 광경을 지켜보다 “옥류교를 쪽파시키라”고 지시했는데 2시간 뒤 군 공병부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폭우가 멈춰 다리는 쪽파를 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파트 2층까지 물에 잠길 정도로 피해가 극심해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는 공포어가 탄생될 정도였다. 당시 기상청에 따르면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이상기후 현상이었다고 한다. 이에 북한 정부는 국가 자연개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극하면서 자연개조사업은 낙원거리 건설 때문에 밀려 외곽 순위로 밀려났다.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6차 대회에서 김정일이 공식 후계자로 선포되면서 대동강 경리사업이 본격화됐다. 상류에 순천갑문과 봉화갑문이 건설되고 하루에 서해갑문을 건설하는 대자연개조사업이 진행됐다. 1985년에는 20리 날바다에 서해갑문을 세워 바다의 흐름을 막고 큰 수해가 나는 것을 막았다. 당시 김일성이 과학자들에게 서해남포갑문을 막았을 때 예상되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결과 장단점을 90 대 10 퍼센트 비율로 예견했다.

좋은 점은 물고기가 득실거리는 대양어장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나쁜 점은 대동강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인데 경마철 봉화갑문에서 물을 때면 서해남포갑문을 통해 오염된 물이 바다로 빠지기 때문에 크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00년대 중반 대동강이 심하게 오염돼 오히려 90%의 단점이 됐고, 대동강 유역의 농경지에 물을 덜 수 있다는 점은 10%의 장점이 됐다.



▲ 대동강에 건설한 쿠에볼로호

☞ 사회의 성격을 반영하는 서울의 한강과 평양의 대동강

남한의 한강과 4대강 논란과 비교해보면 이렇다.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한강댐에 녹조가 많아 국민생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홍수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고 서라도 다시 깨끗한 한강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한국, 그리고 민주사회다. 하지만 대동강은 통치자의 최대 업적으로 부각되어야 하는 이상화물이기 때문에 100% 문제가 돼도 손볼 수 없는 것이다.

대동강 상류에는 순천화학발전소를 비롯해 온곡제련소, 순천제약공장, 덕천자동차공장 등 오수정화설비가 낙후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즐비하다. 더구나 북한의 수도 평양의 중심지인 평천 구역에는 60만kw의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이곳에서 매일 오염된 냉각수를 방출해 대동강을 아프게 하고 있다.



▲ 대동강에서 낚시하는 주민들



▲ 평양화학발전소의 연기

그러나 중금속에 오염된 대동강 물고기들은 생존에 목마른 주민들의 포획물이 되어 위생검역 없이 시장으로 유통된다. 때문에 간염환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평양 수자원 관리국에서는 대동강물을 정수해 공급하지만 식용수는 반드시 끓여 먹으라고 공식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용수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가 수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는 인민반별로 물과 대동강 물고기는 100도씨로 끓이거나 조리해 먹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동강 물고기를 먹지 말라고 여러 번 주의했으나 “먹다 죽으면 한이 없겠다”는 막무가내식 주민들이 있어 제시된 방법이다. 대동강 수질검사서에서 대장균을 비롯한 여러 병원균이 발견돼 당국이 결빙 예방 차원에서 내린 조치였다.

☞ ‘어머니 강’ 대동강이 늙어간다

북한에서 대동강은 보통강과 순화강 등 크고 작은 물줄기들을 중에 안아 거대한 바다로 보낸다는 의미에서 ‘어머니 강’이라고 노래한다. 그런데 남포서해갑문을 막은 다음부터는 서해 밀물과 썰물의 조수차가 중단돼 썰물 때 빠지면 보통강과 순화강이 평양의 거대한 오물단지가 돼버렸다.

평양의 특산물인 ‘평양냉면’과 더불어 ‘대동강송어국’이었다. 1985년 남포서해갑문을 막으면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해 소멸된 송어들이 15년이 지난 2000년 평양 중구역에 자리잡은 ‘평양대동강송어국집’의 간판이 ‘평양메기탕집’으로 바뀐 것만 보아도 대동강의 특산을 살리고 싶어 하는 북한 당국의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서울의 한강에 합류하는 중랑천에서 7~10kg 짜리 비단 잉어떼가 득실거리는 장관을 보고 물고기도 서울에서 태어나자 기쁨을 다 사는구나 하는 생각에 잠긴 적이 있다. 사람이 손짓만 해도 아가미를 물 밖으로 내미는 중랑천과 강남의 양재천 잉어들을 보며 평화로움을 만끽하기도 한다. 서울의 중랑천과 양재천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보통강이나 순화강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다.

☞ 평양에 붕이 김선달이 나타났나?

‘붕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한양인들에게 4천 냥에 팔아먹었다는 옛이야기는 봉건왕조 때 낮은 학벌로 당대 사회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자의 울분을 다룬 일화로 기억한다.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사대부 집에 길어다 주는 물장사꾼을 보고 대동강을 팔아야겠다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주막집에서 물장사꾼들을 꼬셔 얼른하게 대접하고 동전 몇 닢씩을 나누어주고 다음날부터 물을 길어갈 때 자기가 준 동전을 한 닢씩 자기에게 주고가라는 이야기였다.

다음날 이 광경을 본 한양상인들이 대동강의 주인이 김선달인 줄 알고 흥정을 하고자 1천 냥을 불렀다가 김선달의 꾀에 넘어가 5천 냥에 샀다는 일화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감옥신세를 져야하는 사기행위다.

그런데 오늘날도 현대판 김선달이 평양에 있다. 김선달의 12대손인 김정은이다. 해마다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삼복더위기간에 대동강에서 '백주축전'을 벌이며 국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물론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줄어든 외화를 획득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그 옛날 봉이 김선달에게 당했던 한양상인들처럼 대동강 물을 팔아먹으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평양의 대동강은 부벽루와 을밀대가 있는 모란봉을 감돌아 아름다운 경관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산세가 좋은 곳 마다에 특각(통치자의 별장)이 지어지고 그 주변에는 개미 한 마라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는 경호벽이 가로막혀 인민들의 문화 휴식터는 제한적이다.

한강의 긴 거리를 마음 놓고 산책하고 운동도 하는 한강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팔아 번 돈으로 못사는 백성들을 위해 아낌없이 배풀었다는 일깨움을 주듯이 북한 당국도 하루 빨리 역사의 강들을 오염시킬 핵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대동강의 기적'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서울의 한강은 마음 놓고 산책하고 운동하는 도시민들의 휴식처다

서울의 한강에서 평양의 대동강을 회상하다

한반도 역사는 한강과 대동강에서 흘러온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강 유역과 대동강 유역은 반만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왔고 지금도 유유히 흐르며 오늘과 내일을 저장하고 있다.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은 대동강을 대표하고, 고려와 이조 왕조의 500년 역사는 서울의 한강과 더불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토의 강들이 민족 분단의 상징이 되어 한강과 대동강을 따로 바라봐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밤을 밝히는 한강 세빛섬 전경

세월이 흘러도 오로지 거대한 바다의 품으로 달려가는 서울의 한강과 평양의 대동강의 도도한 흐름처럼 한민족이 대동강과 한강을 품은 서해의 넓은 품에서 동일의 걱정을 터트릴 날만을 학수고대한다. 우리의 조상님들이 애국으로 지켜주고, 또 무능으로 빼앗기기도 했던 역사의 한강과 대동강은 바다에서 하나가 되는데 그 물을 먹고사는 한민족이 하나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동일을 속원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닌 노력으로 경취해야 하는 민족 최대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38선이 강토를 가로막고 있지만 한강과 대동강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민족에게 생명수를 주며 남북 서해안을 침 없이 두드린다. 영혼 없는 파도소리지만 잠자는 우리 영혼 속에 동일의 결실함을 깨우쳐주는 것이 아닐까.

(사진자료: 연합뉴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콤플렉스는 내 삶의 훈장 뷰티 전문가 박진선 원장

젊음의 거리 흥대 앞. 한 뷰티숍에는 아침부터 예약 전화가 밀려왔다. 스킨, 네일, 왁싱이라고 써있는 방에는 세 명의 뷰티 전문가들이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친구 같은 손님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열일곱 꽃다운 나이에 탈북해 '자신'과 '꿈'을 찾아 뜨거운 열병을 앓았던 박진선 원장을 만나봤다.



약속을 지킨 선교사와 기나긴 탈북여정

열일곱 진선 씨는 한국에서 낯선 사춘기를 맞았다. 모든 게 새로운 남한 땅, 십여 년 만에 다니게 된 학교와 친구들. 그 틈에 앉아있는 자신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표현은 안했지만 진선 씨의 부모님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온 가족이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건 기적이었다. 실종된 아버지를 찾겠다고 나간 어머니가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았고,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든 오빠와 진선 씨도 친가와 외가로 흩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박진선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뷰티숍 네일아트 룸



▲네일아트 중인 박진선 원장

그 사이 어머니는 수용소 생활을 했다. 중국에서 아버지를 찾다가 복송된 까닭이었다. 반 년 동안 수용소에 계셨던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오셨는데, 청진에서 해령으로 돌아오는 차안에서 한 선교사를 알게 됐다.

선교사는 자신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면 진선 씨네 탈북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열 두 살이었던 진선 씨는 낯선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온갖 고생 끝에 돌아온 어머니는 선교사에게 거처와 식사를 제공했고 마지막 날엔 돈까지 마련해주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선교사가 돈과 약을 보내왔고, 어머니가 먼저 중국으로 향했다.

“며칠 있다 오빠랑 저도 넘어가기로 했는데, 하필 제가 신장염에 걸려서 걸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한 달 정도 앓았는데 처음엔 너무 아파서 실패하고, 다시 갈 때는 조금 나아져서 진짜 죽을힘을 다해 걸었어요.”

V 절망 끝에 찾아온 선물, 밝은 얼굴 찾아주기

한국에서는 대학교에 들어갔다. 진선 씨네 탈북을 도와줬던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모아 한공학교를 세운 덕분이었다. 진선 씨는 학교를 다닐 수 있어 좋았지만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에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다. 어릴 적 한쪽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유를 묻거나 낯설게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었단 까닭이다.

그때부터 진선 씨는 피부와 화장에 관심을 보였다. 처음엔 화상 자국을 가리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친구들을 꾸며주는 일에도 흥미를 느꼈다. 동시에 남모르는 방향도 시작됐다. “한국에 가면 1년 안에 화상 자국부터 수술해주겠다”던 부모님이 약속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22회 국제휴먼 올림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진선 원장



▲싱가포르 '코리아 뷰티센터' 시절 동료와 함께

“여러 병원을 알아봤는데, 당시 3~5천 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고요. 결국 돈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어쩌나 서럽던 지 하루 중일 대성통곡을 했어요. (웃음)”

이날을 계기로 진선 씨는 절종노도의 6개월을 보냈다고 한다. 철성같이 믿었던 희망이 꺾여버렸으니 화가 날만도 했다. 그런데 몇 달 뒤 뜻밖에 기회가 찾아왔다. 이런 저런 방법을 찾던 아버지가 극동방송에서 진행되던 ‘밝은 얼굴 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알아내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V 스무 살, 낭만보다 하드 트레이닝

흉터를 치료하는 사이 진선 씨는 스무 살이 됐다. 대학이든 취업이든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시기였는데 한공학교 목사님이 ‘뷰티 공부’를 권하며 세계사이버대학 학과장인 조군자 교수를 소개해주셨다. 화상 자국 때문에 갖게 된 관심이었지만 친구들 꾸며주기를 좋아했던 진선 씨는 기억한 이유에서다.

진선 씨를 만난 조군자 교수는 먼저 메이크업 모델을 제안했다. 흉터를 가리려고 매일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진선 씨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됐을 즈음 위기가 찾아왔다. 뷰티 전문가가 되려면 기술은 물론 말투나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수는 수저 놓는 것부터 시작해 생활 전반에 걸친 하드 트레이닝을 강행했다.

“그만두겠다고 엄청 때를 썼어요. 친구들은 다들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고 있는데, 저는 왕복 3시간씩 걸려 하루 12시간을 일해야 하니 비교도 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첫 직장에서 포기하면 앞으로 다른 힘든 일 앞에서도 포기하게 될 거라고, 조금 더 견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선 씨는 그렇게 5년여의 시간을 버텼고, 대학 졸업 후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케이무브 프로그램을 통해 싱가포르로 떠났다. 6개월간 영어공부와 인터뷰 트레이닝을 받아 해외취업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그곳에서 진선 씨는 두어 번의 넘어짐 끝에 ‘코리아 뷰티센터’에 들어갔다.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하루 전날 면접 본 곳에서 진선 씨를 매니저로 채용하고 싶다고 제안한 것이다.



▲스킨케어를 준비하고 있는 박진선 원장

V 뷰티 전문가 박진선으로 돌아오다

싱가포르에서의 1년은 진선 씨에게 큰 에너지가 됐다. 경력이 쌓여도 월급이 오르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실력에 대한 인정과 보수가 따랐기 때문이다. 한 번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손님이 “나는 박진선에게만 케어를 받고 싶다”며 패키지 5회치 팀을 쥐어준 일도 있었다. 한동안 “이 길이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때마침 답을 찾은 것 같았다.

“싱가포르에 다녀오지 않았다면 뷰티숍을 내는데 겁을 냈을 거예요. 외국에서 일하는 서러움이 크긴 했지만, 힘이 되는 인상 깊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덕분에 자신감도 얻고 용기도 얻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삶의 에너지가 크게 바뀌는 시기였죠.”



▲네일아트 중인 박진선 원장

진선 씨는 올해로 창업 1년차가 됐다. 딱딱한 말투 때문에 면박 당하기도 여러 번, 전화 받기도 꺼려했던 사회 초년생 박진선이 어느새 10년차 전문가가 된 것이다. 그 사이 진선 씨는 뷰티산업 보건학 석사 과정을 밟고 국제 휴먼 올림픽 대상, 대한 미용사회중앙회 은상 등 온갖 상을 수상하며 월드 뷰티문화축전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금은 또 다른 꿈이 생겼다. 뷰티 공부에 뜻이 있는 탈북민에게 기술을 가르쳐주어 훌륭한 뷰티 전문가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포기하지 않으니가 끝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돈 벌려고 기술을 배웠는데 하다보니까 공부도 하고, 외국에도 나가보고, 제 숨도 생겼어요. 탈북민들을 돕는 것도 제가 노력만 하면 가까운 미래라가 될거라 생각해요.”

남들과 다른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열일곱 소녀 진선 씨는 끝까지 않을 것 같았던 이십대를 보내며 엄치락뒤치락 싸름을 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갓 삼십대에 접어들어 지금은 내면까지도 아름답게 가꿀 줄 아는 진짜 뷰티 전문가가 됐다. 오롯이 자신과 꿈을 찾아 열심히 뛰고 있는 박진선 원장의 또 다른 행복이 기대된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통일 대한민국 입시 풍경

글. 김혜진/그림. 이택중

10년 전 대학수학능력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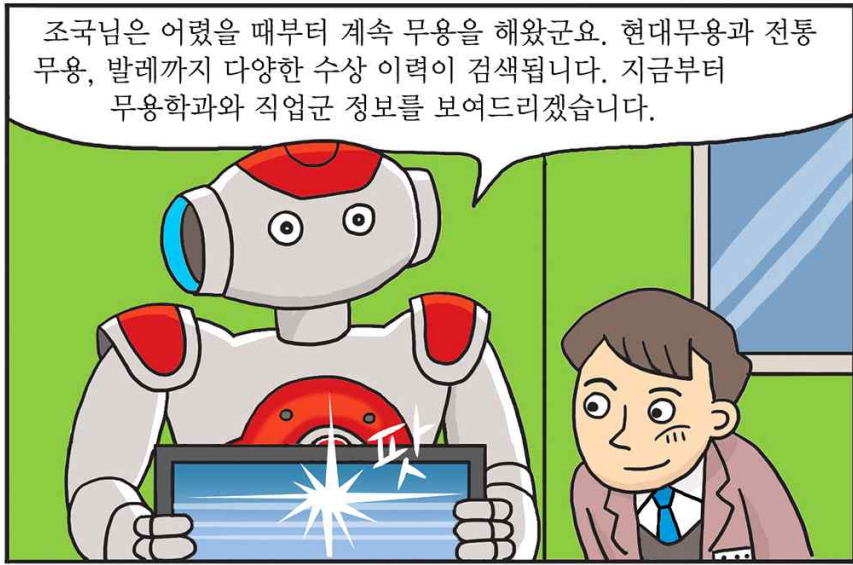


통일 후 대학적성검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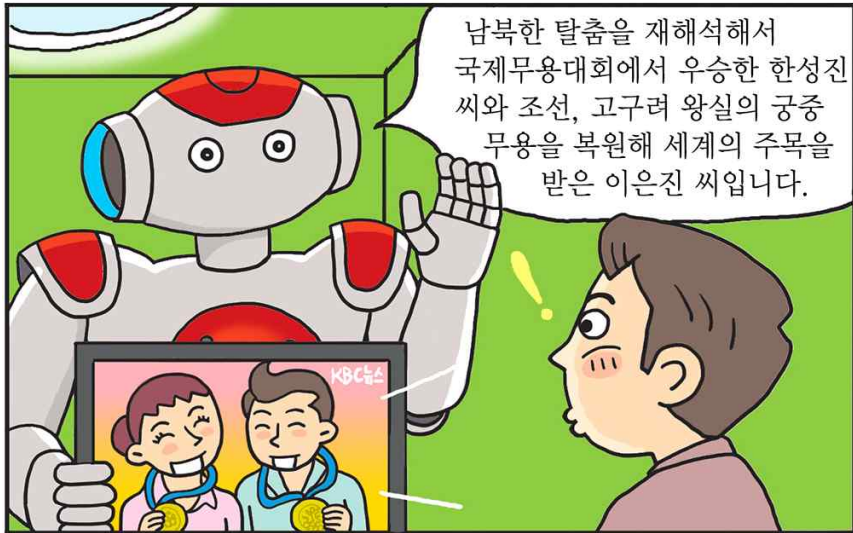


조국이 형이 저기서 대학시험을 보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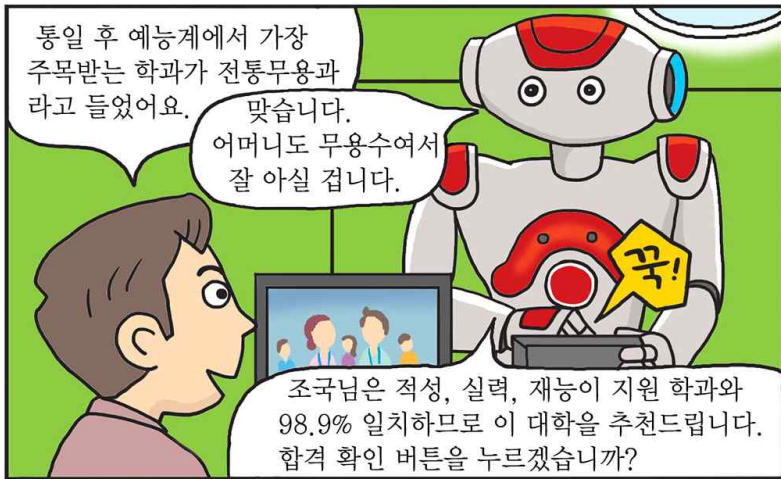
대학 입학 평가를 받고 있는 거야. 꿈과 적성에 따라 인공지능 에듀파고가 평가해주고 형에게 어울리는 전공을 추천해주는 제도란다.



조국님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무용을 해왔군요. 현대무용과 전통 무용, 발레까지 다양한 수상 이력이 검색됩니다. 지금부터 무용학과와 직업군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남북한 탈춤을 재해석해서 국제무용대회에서 우승한 한성진 씨와 조선, 고구려 왕실의 궁중 무용을 복원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은진 씨입니다.



통일 후 예능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과가 전통무용과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머니도 무용수여서 잘 아실 겁니다.

조국님은 적성, 실력, 재능이 지원 학과와 98.9% 일치하므로 이 대학을 추천드립니다. 합격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까?



이모! 엄마 대신 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엄마는 러시아 무용 공연 때문에 요즘 바쁘시잖니? 당연히 와봐야지. 합격했지?



그럼요^^.

남북한간 교육환경이 많이 달라서 대학입시가 문제였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니 좋구나.



통일된 뒤에 다양한 학과도 많이 생겨났던데?

산림환경대학, 대륙물류학과, 실용지하자원과, 남북통합건설턴트?



아하! 대학가기 쉬워졌다고 너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거니?

하하하! 행복이는 글로벌 게임 크리에이터과를 이미 점찍어놨단다!

아네요!

풍류 따라 선비 따라, 꿈결 같은 가을 길

경남 함양

이제 나도 한 잎의 낙엽으로,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리고 싶다

황동규 <시월>



어느 빛나는 가을날, 남덕유선이 돌아앉아 남쪽의 지리산을 바라본다. 두 산은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마주 바라보며 영원히 그리워한다. 천 년 이고 만 년이고 애달프다. 두 산이 뜨겁게 맞잡은 자리에 꼭 안긴 함양, 이 땅에서 남강이 발원해 중요한 대지를 물들이고 결국 바다에 이르러, 여기 처음처럼 맞 절하는 산맥과 물줄기들이 부끄러워 붉게 물들었구나. 우리의 시간이 맞닿아 깊어지는 가을, 천 년의 숲 상림을 거닐었다.

사유로 빛어낸 저 너머 천재들의 숲, 상림(上林)



상림의 역사는 천 년이 넘었다. 통일신라시대 인물인 최치원이 태수로 있으면서 흉수를 막기 위해 강물을 돌리고 독을 썰고 나무를 심어 가꾸 만들었다고 한다. 그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면 처음엔 대관림(大館林)으로 불렸으나 이후 큰 홍수가 나서 중간 부분이 유실되었고, 남은 위쪽을 상림, 아래쪽을 하림으로 부르다가 상림만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고 한다. 가을이 되면 오솔길에 단풍에 물들어 더욱 아름다운데, 먼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만큼, 영원히 거닐고 싶다.

숲 내의 역사인물공원은 오래된 비석들과 함께 역사 속의 인물들의 동상이 위상을 건주며 당당하게 서 있다. 가운데 상석에는 한 편의 글로 당나라 황소의 난을 진압한 문장가 고운 최치원 선생이 위치하고 있고, 열하일기로 조선 후기 문장을 주도한 연암 박지원을 포함해 성리학의 거두로 손꼽히는 일두 정여창 등 혼란의 시대를 한스롭게 살다간 천재들이 즐지어 있다. 정파와 역사에 휩쓸려 다친 뒤 이 함양의 자연에 은거하며 백성을 돌본 선비들이다. 맨발로 광야를 내달린 가없는 생이며, 이들은 역사에 매여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오히려 글을 바르게 펴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법을 모색했다. 자갈밭을 걸듯 자신의 꿈을 갈아 이 함양 땅에서 이상을 일구었다. 이들은 이제 이곳에서 선선이 되어 숲을 수호하고 있다.



▲ 작은 개울을 따라 이어지는 상림의 산책로

숲에는 물레방아가 열심히 돌고 있는데, 연암 박지원 선생과 관련된 숲은 사연이 있다. 연암 선생은 이 함양 땅에서 필생의 공력을 모아 <열하일기>를 써냈고, 물레방아를 만들어 수력으로 곡식을 탈곡하게 해 백성의 생활을 도왔다. 이 물레방아는 함양의 연암물레방아공원에 실물로 아직까지 견재하게 시간을 돌리고 있다. 숲길 곳곳 마주치는 수목은 400여 종이 넘어 식물학상으로도 가치가 높다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무진무진 모아 놓아도 어느 한 곳 흐트러짐 없이 깨끗하다. 국내에서 가장 큰 연꽃밭은 가을에도 그 초록빛이 생생하고 향기롭다. 걷노라면 마음이 따뜻해져서 무정하게 나를 끌고 가는 이 운명이라도 으스스하게 부둥켜 안아보고 싶어진다.



▲ 역사인물공원의 11개의 인물상



▲ 박지원의 정신을 기린 물레방아



고택 마당에 앉아 즐기는 정취, 개평 한옥마을과 일두 고택

오래전 함양에 정여창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다. 명민하고 청렴하고 그 덕이 높았다고 칭송이 자자했다. 그는 한때 세자의 스승 노릇을 했는데, 자신이 가르쳤던 어린 세자 연산군이 자라 왕이 되었을 때 정여창 선생의 운명은 방향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연산군은 정여창 선생의 스승 김종직과 그 제자들을 향해 갈날을 겨누었다. 절친한 벗들과 함께 사회에 휩쓸려 평생 유배 생활을 하며 그는 평생 광야를 내뿜겨 달랐다. 평생을 떠돌면서도 그는 자신의 학문을 완성해 우리나라 다섯 현인, 동방오현(東方五賢) 중 한 사람으로 존경받게 된다.



▲일두 정여창선생의 고택 대문 상단, 효자를 기리는 정려비가 붙어 있다

주변에는 구석기 유물을 발견한 장소를 박물관으로 꾸민 수양개천사유물전시관이 있다. 이곳 수양개의 구석기 유물 중에는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린 '물고기 모양을 새긴 예술품' 등의 귀중한 유적이 많아 역사 교육장으로 큰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전시관 뒤편으로 나가면 터널을 불빛으로 가득 채운 '수양개빛터널'이 있다. 문을 열거칠하니 불빛이 가득 차 있었다. 지금껏 우리가 마주치던 답답한 시멘트 냄새나는 터널은 여기에 없다. 이곳의 터널은 낮설고, 어쩐지 활활 날아가는 기분마저 든다. 터널의 끝에 환한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문이 있었다. 저 문을 열면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며 밖으로 나가기 결국 우리가 방금 서 있던 그 세상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순간이 천국이고 극락이 아니었을까. 터널의 끝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우리의 생이 반갑다.

정여창 선생은 '한 마리의 쯔벌레'라는 뜻의 '일두(一蠹)'라는 호를 썼는데 이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겠다'는 뜻으로 권력의 외연에서 평생 자신을 완성해나간 그의 생애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소문난 효자이기도 했는데 이후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 그의 고향집인 일두 고택 대문에는 효성을 치하하는 정려패(旌閭牌)가 다섯 개나 달려 있다. 3천 평 정도의 집터에 솟을 대문, 행랑채, 사랑채, 안채, 사당 등 11개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함양 개평마을은 상업화된 곳과는 다른 느낌의 한옥마을로, 안동 회화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전통가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힌다. 일두 고택을 중심으로 개평 마을에는 오담 고택, 풍천노씨 대종가, 노참판댁 고가 등 문화재급의 고택 60여 채가 잘 보존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했지만 개평마을에서 전통가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고사했다고 한다. 정여창 선생 집안인 하동 정씨의 건통주 술송주는 향이 그윽하기로 이름난데, 술 한 잔에도 선비의 향기로운 자취가 영원토록 남아 있었다. 고택을 그저 지나치기 아쉽다면, 여기서 하룻밤 묵어가며 맛있는 밥 한 끼, 술 한 잔 사먹을 수 있다고 하니 마치 고향에 온 듯 마음이 더없이 푸근하다.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 사랑채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 안채

푸른 강물 위에 내려앉은 정자 여럿, 선비문화탐방로



함양은 본디 남덕유산 육십령재를 넘어가기 전, 남도에서 상경하는 유생들이 이곳에서 잠깐 숙을 고르던 자리였다. 큰 고비를 넘기 전, 오히려 마음과 몸을 가다듬고 체력을 보완하기 위한 지혜는 비단 고개를 넘는 일뿐이겠는가. 갈 길이 멀고 고된 생애 어느 지점, 그래도 잠시 쉬며 후술러 가라는 지혜는 우리에게 인생사 어디에나 교훈이 되는 말이 아니겠는가. 지친 몸을 비로소 이곳에 부러 잠시 쉬어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듯 마음이 가벼다. 어디에 앉아도 풍광은 더할 나위 없다. 이곳은 옛날부터 정자와 누각이 즐비해 앉아 쉬기 좋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 거연정을 출발점으로 잡아 물길을 따라 6km 남짓 두어 시간 거리의 걷기 좋은 길이 이어지는데, 이를 최근 다듬어 만든 산책길이 '선비문화탐방로'이다.



▲정자 문화의 보고라 불렸던 화림동 계곡



▲바위 위에 올라앉은 거연정

한때는 '팔담팔경(八潭八景)'으로, 또 '정자 문화의 보고'라 불렸던 화림동 계곡을 따라, 현재 이어져 오는 정자는 7개가 있다. 특히 군자정, 거연정, 동호정은 조선시대 지어진 그대로 잘 보존되어 가치가 높다. 영귀정, 람천정 등 1970년대에 복원된 정자도 꽤 기품이 있어 사랑받는다.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 불에 탄 농활 정은 그 모습을 볼 수 없고 흔적만 남아 있다.



▲일두 정여창 선생이 증수한 광풍루

선비길이 시작되는 거연정은 주자의 시구인 '한가히 내 자연을 즐기다[거연아천석(居然我泉石)]에서 따온 이름으로 암석 위에 올린 다소 높은 위치의 정자에서 밖을 내다보면 하늘 가마를 탄 듯 황홀하다. 그 곁에는 일두 정여창을 기려 만든 소박한 군자정이 있고, 조금 더 가면 검치마에 팔작지붕을 얹은 동호정을 만날 수 있다. 한때 풍류객들은 바위에 패인 웅덩이에 막걸리를 붓고 꽃잎이나 술잎을 띄워 바가지로 퍼마시며 즐겼다고 한다.

가을 하늘을 벗으로 삼고, 누렇게 익어가는 들을 사랑으로 삼아 걷고 걷다보니 선비길의 끝에 다다른다. 마지막 코스는 광풍루로, 금천변을 배경으로 서 있는 일두 정여창 선생이 중수한 관아 객사다. 금천변을 배경으로 선 고풍스러운 이 누각은 200여 년 전 연암 박지원 선생이 특히 사랑하였다고 하며, 근처 제방에 조성된 갯버들 숲 '오리숲'도 연암 선생이 조성했다고 한다. 방랑벽을 뽐내던 그들은 무엇을 담고 무엇을 비우려 하였는가. 가슴에 이상향을 소중하게 품고 와 이 골짜기에서 광활한 미래를 꿈꾸었던가. 저 깊은 숲 속으로 인생도 길도 이어진다.



▲ 광풍루 앞을 흐르는 금천

가을철 영양만점 한 끼, 이복식 비지밥

이복 사람들이 즐겨먹는 '비지밥'은 쌀, 콩비지, 시래기, 돼지고기가 어우러져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다. 콩비지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배추나 무청을 말린 시래기에는 비타민, 칼슘, 철분이 풍부하다. 새우젓, 나박김치, 양념장 등을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는 비지밥을 만들어보자.



요리재료

불린 쌀 2컵, 콩 200g, 배추시래기 200g, 돼지고기 100g, 파 30g
양념장: 간장 20g, 마늘 10g, 고춧가루 3g, 참기름 5g, 참깨 3g

Step 1



콩은 하루 전에 불렀다가 5분 정도 삶아 껍질을 벗겨둔다.

Step 2



냄비에 돼지고기와 파, 마늘을 넣고 볶아준다.

Step 3



돼지고기가 익어갈 즈음 잘게 썰어둔 시래기를 넣어 조금 더 볶아준다.

Step 4



볶아둔 돼지고기와 시래기 위에 믹서에 간 비지를 넣고 약한 불로 서서히 끓인다.

Step 5



비지가 끓기 시작하면 불려둔 쌀을 넣고 골고루 섞으며 푼어준다.



요리연구가_배혜경

배부르고 따뜻한 황해도 향토음식 '비지밥'

비지밥은 맷돌에 간 거친 비지와 가을에 말려둔 시래기를 넣어 지은 황해도식 향토음식이다.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을 수 없던 시절 하루 한 끼는 꼭 비지밥을 챙겨 먹었다고 한다. 한 가지 음식으로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오랫동안 배가 부를 수 있었던 까닭이다. 최근에는 TV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비지밥이 '칼로리가 적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외교, 국방, 통일 문제 끊임없이 연구하자” 2017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는 10월 19일부터 20일 '2017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를 개최해 18기 여성위원의 활동방향을 공유하고 여성 통일 활동 실천방안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이현숙 여성부의장, 이미현 대전부의장, 고희순 세종부의장, 여혜숙 여성분과위원장 등 전국 시·도 지역회의 여성부의장 17명과 시·군·구 여성분과위원장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1일차에는 이현숙 여성부의장 기조강연과 제18기 여성사업 추진방향 보고, 통일 망정착 시기 공모전 시상 및 대상 수상작 발표 등이 진행됐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현숙 여성부의장은 “여성들을 외교, 국방, 통일 문제 등에서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국정철학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성위원장, 여성분과위원장께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을 활성화 할 것”을 주문했다. 2일차 행사에서는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특강과 분임토의 결과 발표 등이 진행됐으며, 분임토론에서는 ‘우리의 마음 열기, 함께하는 토론’이라는 주제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모아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시각을 통해 창의적인 통일 만드자” 2017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는 26일부터 1박2일간 황인성 사무처장, 이상천 경북 부의장, 18기 청년위원장 및 청년분과위원장 등 200여 명과 함께 '제18기 청년분과위원장 정책회의'를 실시했다. 회의는 1일차에 개회식, 동영상 상영 및 기조강연, 제18기 청년사업 추진방향 보고, 지역별 상건례 및 집중토론, 2일차에 집중토론 결과 발표, 지역별 활동방향 토론 및 종합정리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첫째 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이 평화적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지역별 상건례 및 집중토론 시간에는 제18기 청년사업 활동목표 및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각 지역 시민들의 평화 감수성 높이기 사업 △청년 주도 시민과 함께하는 통일사업 △남남갈등 해결 방안 △민주평통 홍보 방안 △청소년 통일의식 고취 방안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청년 위원들의 역할 등 총 6가지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아카데미



▲ 제1기 민주평화통일자카데미(서울 성동구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자카데미(부산 남구협의회) ▲ 제1기 민주평화통일자카데미(충남 보령시협의회)

서울 성동구협의회(회장 김정균, 10월 18일), 부산 남구협의회(회장 박종현, 10월 16, 23일), 충남 보령시협의회(회장 김정원, 10월 17일)는 '제1기 민주평화통일자카데미'를 열어 '북핵문제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강의와 토론 시간을 가졌다.

시민교실



▲ 통일시대 시민교실(경남 함양군협의회)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윤학승, 10월 21일), 경남 사천시협의회(회장 정자영, 10월 19일), 경기 하남시협의회(회장 전주진, 10월 19일)는 자문위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7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해 '북한의 실상과 대북정책'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전북 임실군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충북 영동군협의회)

전북 임실군협의회(회장 김태진, 10월 18일), 충북 영동군협의회(회장 정인화, 10월 11일), 강원 영월군협의회(회장 고진국, 10월 11일)는 자문위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어 '북한사회 변화와 문화로 여는 통일', '한반도 주변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등의 강연을 실시했다.

자문위원 연수



▲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경북 의성군협의회)

경북 의성군협의회(회장 황병은, 10월 13~15일),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이중희, 10월 20~21일), 부산지역협의회(부회장 이영, 10월 17일)는 '2017 하반기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해 자문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과 정책포럼, 평창동계올림픽 건학 등을 진행했다.



▲ 제18기 자문위원 연수(경기 이천시협의회)

▲ 제18기 임원워크숍(대전 서구협의회)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김영성, 10월 15~16일)와 제주지역협의회(부회장 김영호, 10월 13일)는 '제18기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해 한반도 평화구상과 남북관계에 관한 강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영문)는 10월 13일부터 1박2일간 '제18기 임원워크숍'을 열었다.

좌담회 및 포럼



▲ 오피니언리더 초청 평화공감 좌담회(인천 부평구협의회)

▲ 오피니언리더 초청 평화공감 좌담회(경기 의정부시협의회)

▲ 평화통일포럼 사업 설명회(부산 사상구협의회)

인천 부평구협의회(회장 박종훈, 10월 24일)와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강은희, 10월 18일)는 관내 사회단체장 및 임원,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피니언리더 초청 평화공감 좌담회'를 개최해 북핵문제 및 한반도 안보위기 본질과 평화정책 방안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부산 사상구협의회(회장 김대근)는 24일 '평화통일포럼 사업 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의 통일여론 수렴을 이끌고 대북 및 통일정책에 관한 강연을 가졌다.

간담회



▲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광주지역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경남 창원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대전 유성구협의회)

광주지역회의(부위원장 장해숙, 10월 14일),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김기운, 10월 12일), 대전 유성구협의회(회장 조성화, 10월 19일)는 관내 탈북민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 해운대구협의회(회장 김도성)는 22일 평화통일한마당 추진위원회와 함께 '2017 평화통일콘서트 특두유'를 진행했고, 경기 군포시협의회(회장 김권진)는 21일 지역주민과 '제2회 통일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충북 보은군협의회(회장 박준석)는 18일 보은대축제와 병행해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평화통일 염원 한마음 공연'을 열었다.



▲ 제18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경기 시흥시협의회) 제18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경기 수원시협의회)

▼ 제18기 1차 국민소통분과위원회 및 상건례(경기 안산시협의회)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김영심, 10월 18일)와 수원시협의회(회장 성열학, 10월 12일)는 자문위원 및 대행기관장, 시민들과 함께 '제18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선충, 10월 17일)는 12명의 국민소통분과위원회와 함께 '제18기 1차 국민소통분과위원회 및 상건례'를 열었다.



▲ 제4회 곡성 통일 전국종합예술대전(전남 곡성군협의회)

▲ 시흥시 이북5도민회 망향제(경기 시흥시협의회)

▲ 군위군민체육대회 전야제 무료 일일찻집 운영 및 통일공간(경북 군위군협의회)

전남 곡성군협의회(회장 김관준)는 21일부터 22일 (사)대한전통문화예술협회와 '제4회 곡성 통일 전국종합예술대전'을 공동 개최했다.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김영심)는 13일 강화 교동에서 실향민 1세대 및 미망인과 함께 '2017년 시흥시 이북5도민회 망향제'를 실시했다.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최규중)는 12일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군위군민체육대회 전야제 무료 일일찻집 운영 및 통일공간'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 제18기 1차 여성분과위원회(서울지역회의)

▼ 제18기 1차 여성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의회의(경기 안산시협의회)

서울지역회의(부위원장 이세용)는 12일 서울 여성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주관으로 22개구 협의회 여성분과위원장과 '제18기 제1차 서울 여성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선충)는 13일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조춘자)의 주관으로 '제18기 1차 여성분과위원회'를 진행했고, 23일 '제18기 1차 분과위원장의회의'를 가졌다.



▲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통일대축전(강원지역회의)

▼ 우리영토 독도방문 캠페인(강원 홍천군협의회)

▲ 함께해요! 통일준비!(서울 강동구협의회)

강원지역회의(부위원장 조창진)는 20일부터 3일간 '2017 강원도 평화통일 페스티벌 통일대축전'을 찾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 홍보관'을 운영했다.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고춘석)는 17일부터 19일까지 울릉도, 독도 현지에서 '2017 우리영토 독도방문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울 강동구협의회(회장 황용규)는 13일부터 1박2일간 '제2회 강동선사문화 축제장' 현장에서 '2017 함께해요! 통일준비!' 홍보관을 운영했다.

통일문화 확산



▲ 평화통일콘서트 특두유(부산 해운대구협의회)

▲ 제2회 통일 어울림 한마당(경기 군포시협의회)

▼ 평화통일 염원 한마음 공연(충북 보은군협의회)

▲ 통일 염원 한마음 공연(충북 보은군협의회)



▲ 통일말 정착수기 공모전 및 청소년 통일 사진·동영상 콘테스트(서울지역회의&대구지역회의)

▲ 국기사랑 나라사랑(강원 동해시협의회)

▼ 자매교류 기념식(경북 성주군협의회&부산 기장군협의회)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이세웅, 10월 12일)와 대구지역회의(부의장 허노목, 10월 14일)는 '2017년 통일만 정착수기 공모전 및 청소년 통일 사진·동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안승호)는 14일부터 1박2일간 낚은 태극기를 가지고 오면 가정용 태극기를 무료로 교환해주고, 태극문양 페이스페인팅과 태극기 그리기 체험을 제공하는 '국기사랑 나라사랑' 행사를 개최했다. 경북 성주군협의회(회장 손정열)와 부산 기장군협의회(회장 김세현)는 14일 지역간 우호의 정을 나누는 자매교류 기념식을 가졌다.

통일미래세대 육성



▲ 찾아가는 통일공감 문화 토크콘서트(대전 서구협의회)



▲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부산 서구협의회)



▲ 민주평통오산 중학생 역사·통일골든벨(경기 오산시협의회)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영문)는 17일 대전둔산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공감 문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백창욱)는 13일 부산관광고등학교 학생들 6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 오산시협의회(회장 김정수)는 11일 주요 내빈과 자문위원, 관내 중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2017 민주평통오산 중학생 역사·통일골든벨'을 개최했다.

통일안보 견학



▲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경북 의성군협의회&경기 여주시협의회&충북 단양군협의회&경남 거창군협의회)

경북 의성군협의회(회장 황병운, 10월 18일),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박용일, 10월 18일), 충북 단양군협의회(회장 김희수, 10월 13일),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승열, 10월 20일)는 해군2함대(전안함) 및 전쟁기념관 등으로 '2017 청소년 통일안보 현장견학'을 다녀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추석명절음식 만들기(충북 충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희망농장(경기 광주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경기 김포시협의회)

충북 충주시협의회(회장 이석기)는 10월 1일 여성자문위원, 관내 탈북민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추석명절음식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김정봉)는 17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희망농장'을 열어 농작물 수확행사를 진행했다.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이미연)는 18일부터 1박2일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봉사활동



▲ 추석맞이 사랑 나누기(전북 순창군협의회)



▲ 통일염원나무 소원지 매달기(전북 김제시협의회)

전북 순창군협의회(회장 김용기)는 10월 2일 관내 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 및 부식을 전달했다. 전북 김제시협의회(회장 도인기)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김제 지평선 벽골제 축제장과 김제역에서 '통일염원나무 소원지 매달기' 행사를 진행했다.

해외활동



◀ 평창 올림픽 홍보&제18기 통일아카데미(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13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리곤벨리를 시작으로 관할 지역별 올림픽 지원 및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어 19일에는 팔로알토 미첼파크 커뮤니티 센터에서 신기욱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북핵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통일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설규중)는 20일 한국총영사관에서 '동일의 길, 함께 걸어요' 강연을 실시했다. 강연을 맡은 설규중 회장은 이날 중국 대학생과 재청도 한국 유학생들에게 "미래 통일한국의 비전이 곧 동북아 평화이며, 세계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에 통일의 불을 일으켜보겠습니다” 제18기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기준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강한 안보, 상호존중, 국민소통, 우리 주도, 국제협력이 그것입니다. 물론 현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올바른 방향을 잡아 경선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는 평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중국 베이징협의회(회장 임영호)는 17일 '제18기 베이징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한규 베이징주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와 이선호 영사, 중국지역회의 이숙순 부의장, 4개 중국 지역 협의회 회장(상하이협의회 안태호, 선양협의회 박영완, 칭다오협의회 설규중, 광저우협의회 허남세) 등이 참석했으며, 위촉장은 노영민 주중국대사가 직접 전달했다. 임영호 회장은 이날 "모든 자문위원들이 민주평통 전문가들이 작성해 보내주는 좋은 정보를 정리해 중국의 우리 동포와 중국인들에게 한 달에 1회 이상 전달해 민주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18기 베이징협의회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시안 등지에 거주하는 자문위원 95명으로 구성됐다.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122개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0월 30일 워커히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제18기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해외 지역회의 및 협의회 간부위원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김덕룡 수석부위원장 특강과 조명균 통일부장관 통일 정책보고, 해외 지역회의·협의회의 운영방향 및 운영실무 보고, 황인성 사무처장 주최 오찬 나눔, 지역별 본인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덕룡 수석부위원장은 개회사와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과 해외 간부위원의 역할'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는 "18기 민주평통의 해외 자문위원 국가가 117개국에서 122개국으로 늘어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와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러 분들이 동포사회의 의견수렴과 평화통일의 마음을 심는데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덕룡 수석부위원장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지만 5천만 국민과 750만 해외동포들이 하나로 네트워크를 이룬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떨어진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낙엽이 되어 다시 뿌리로 돌아가듯이 '낙지생근 낙엽기근(落地生根 落葉歸根)'의 마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덧붙였다.



▲ 개천절 기념 행사(아세안 동남아서부협의회)

아세안 동남아서부협의회(회장 송광중)는 1일 배·한 친선협회와 함께 한국의 4,349주년 개천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호치민 지회와 한국상공인연합회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과 통일 자전거를 선물하며 "배·한 수교 25주년을 맞아 11월에 있을 경주 엑스포 행사를 계기로 더욱 많은 교류를 갖자"고 말했다. 아울러 이순혁 동남아서부협의회 수석부회장은 "금번 행사로 통일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통일 염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황인성 사무처장

황인성 사무처장은 환영사에서 “열마 전 출범식에 참가하기 위해 아시아 대양주와 미국 중남부 지역을 방문했는데, 서로 다른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완벽한 출범식을 치러내고 늘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시면서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동포사회의 통일운동을 전개하려는 여러 분들의 움직임에 큰 힘을 받고 돌아왔다”며 “동포사회의 여러 의견들이 정책건언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국민의견 대북정책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5대 대북정책 추진 기준과 함께 베를린 구상 및 광복절 축사를 통해 소개된 통일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조 장관은 “새 정부의 5대 대북정책은 강한 안보, 상호존중, 국민소통, 우리 주도, 국제협력”이라며 “이런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은 경관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는 ‘올바른 평화통일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생존 위협에 의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하고, 북한과의 협상·교류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과 함께 관광 및 에너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북한에서도 핵개발을 포기하고 태도를 변화하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정부 정책을 보고하고 있다

▲ 최광철 미국 로스앤젤레스 간사가 질문하고 있다

보고 후에는 해외 간부위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에 최광철 로스앤젤레스 협의회 간사와 곽태우 밴쿠버협의회 간사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및 세부 사항을 책자와 파일 등으로 공유해 달라”고 건의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대북정책을 책자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해외 동포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것이 대북정책이라고 결론짓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방향을 설정할 뿐, 그것을 통해 교포와 국민들이 주시는 의견으로 내용을 채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외교 및 평화담론 형성

이어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 방향 및 실무에 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전남경 활동지원 국장은 “제18기 민주평통의 전체 활동방향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이며, 특히 해외 지역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것과 평화담론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외 지역의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곽영훈 해외지역과장은 해외 지역회의·협의회에 대한 활동 지원 규정과 집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해외 지역회의·협의회 운영 방향 및 실무 보고



▲ 지역별 분임토의 중인 해외 간부위원들

황인성 사무처장이 주최한 오찬 나눔 후에는 일본, 중국, 아세안, 미주, 유럽이 지역별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일본은 4개 협의회, 중국은 5개 협의회, 아세안은 7개 협의회, 미주는 20개 협의회, 유럽은 7개 협의회가 참석했으며 토의 결과 크게 3가지 의견이 개진됐다.

첫째 평화라는 화두를 동포사회에 어떤 식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둘째 정치적 신장을 통해 한국의 평화통일 정책이 미국사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셋째 신규 자문위원 및 젊은 세대들이 통일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류와 연계한 차세대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내용 등이다.



“평화통일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소망입니다”





이기수 (아세안 서남아협의회 간사)

아세안 서남아협의회는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5개 협의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국적협의회인 만큼 현지인들과 친선, 봉사, 지원 폭에 초점을 맞춰 공공외교로 평화와 통일을 일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연말과 새해에는 난타와 비보잉 등 한류를 활용한 행사와 태권도시범단 등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자문위원 분들과 뜻을 모아 서남아에 통일의 불을 일으켜 보겠습니다.



정미호 (미국 필라델피아협의회 회장)

필라델피아에 거주한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국정이 어려워 어제는 무겁지만 우리 동포들과 함께 사무처가 이끌어주시는 방향에 맞춰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미 주류사회에 파고들어 미국 시민들과 어울리고, 서로가 처해있는 어려움을 나누며 '평화통일'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소망을 전하겠습니다.



허남세 (중국 광저우협의회 회장)

광저우는 중국의 가장 남부에 있는 광둥성을 중심으로 칠성 1직할시를 관할하는 협의회입니다. 주변에 홍콩과 마카오가 있어 중국 경제의 특구이기도 합니다. 저희 60명의 자문위원은 “어떻게 하면 한국을 사랑하는 중국인들을 만들고 함께 평화통일을 이뤄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올해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저우협의회와 모든 해외 협의회들 파이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비밀댓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30명을 추첨해 2천 원 상당의 음료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하나, 나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둘, 나는 대통령 직속의 통일 자문기구입니다.



셋, 나는 국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모아 공감대를 확산합니다.



넷, 나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책을 자문, 건의합니다.

힌트보기

◆ 참여방법 ◆

'내가 누구인지' 비밀댓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30명을 추첨해 2천 원 상당의 음료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 기간 2017년 11월 10일~12월 3일까지

응모 방법 비밀댓글로 정답 응모하기

경 품 편의점 음료 상품권 (2천 원 상당) 30명



'18기 민주평통'과 하고 싶은 통일 활동은?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하고 싶은 평화통일 활동을 비밀댓글로 남겨주시면 5명을 선정해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민주평통과 함께 하고 싶은 통일 활동은?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함께 하고 싶은 평화통일 활동을 비밀댓글로 남겨주시면 5명을 선정해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18기 활동으로 채택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 참여방법 안내 ※

- 응모기간** 2017년 11월 10일 ~ 12월 3일까지
- 응모방법** 비밀댓글로 정답 응모하기
- 경 품**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 원 상당) 5명



축하합니다!

e 행복한 통일 이벤트 당선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닉네임	휴대폰 번호
불나방	010-**-19-8234
지지맘	010-**-45-9515
해품달	010-**-36-1793
되오	010-**-63-2076
김정옥	010-**-40-2143
박태희	010-**-94-0655
김숙희	010-**-67-4317
나진우	010-**-44-4845
김태형	010-**-79-2005
자유	010-**-30-0237
스카이블루	010-**-67-4861
rima1234	010-**-21-3118
소리아노	010-**-69-1795
파유지	010-**-29-8394
대한민국	010-**-50-2731
megatron	010-**-29-3463
행복구리	010-**-06-8152
프레피	010-**-63-2827
복스	010-**-24-0046
행운의여신	010-**-86-4124
소망	010-**-02-7429
은덕구	010-**-21-3758
차리킬로	010-**-19-6867
이경익	010-**-74-0231
캐로로	010-**-21-0318
별이	010-**-78-0942
pony6736	010-**-35-0272
딩검다리	010-**-53-6054
산물강	010-**-60-9653
누리길손	010-**-84-4953



복불복 통일 사다리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이정미	**indain31@daum.net
임선희	**acesunny.lim@gmail.com
김재훈	**nsumjh@naver.com
최은진	**178121@gmail.com
조영미	**ddlgiddl@naver.com
꼬꼬덕꼬꼬	**vem84@naver.com
김기성	**shs@nate.com
안상선	**nover@hanmail.net
통일특파원	**allnew@hanmail.net
박경원	**ngyuan27@naver.com



웹진 만족도 조사 이벤트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010-**-50-2141	010-**-08-4070
010-**-87-9631	010-**-50-4437
010-**-37-1361	010-**-27-6408
010-**-26-2946	010-**-60-0350
010-**-61-3001	010-**-89-5675
010-**-28-7035	010-**-03-4760
010-**-14-5019	010-**-61-9805
010-**-71-6462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